



## 전통 공예의 창조적 전승과 산업화: 일본 가나자와 창의도 시의 교훈\*

수엣 령 쿠\*\*

### 초록

전 세계 도시들이 세계화에 대응하여 재구조화하면서, 많은 도시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의 창의성과 문화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창의도시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 도시들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가나자와 시는 에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예와 민속예술로 도시의 문화적 생산양식과 창의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가나자와는 창의산업의 활력으로 인해 2009년에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나자와가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채택한 창조적 전승과 산업화 접근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나자와의 성공 요인과 전략은 5가지 핵심 주제인 1) 토대, 2) 비전, 3) 인적 자본, 4) 계획, 5)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한 성공 요인과 전략은 지역 내 또는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다.

키워드: 창의도시, 가나자와, 공예와 민속예술, 전통 공예, 전승, 산업화

\* 이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일본 스미토모재단(Sumitomo Foundation)에 감사를 표한다.

\* 수엣 령 쿠(Suet Leng Khoo)는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Universiti Sains Malaysia, USM) 사회과학대학 '개발 계획 및 관리 프로그램'의 부교수이다. 그녀는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출판물로는 『도시 개발 전략으로서의 창의도시』(Creative City as an Urban Development Strategy) (2020) 등이 있다. 이메일: slkhoo@usm.my.

## 1. 머리말

21세기는 도시 시대로서 도시를 성장과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도시는 이제 도시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기능을 담당한다. 영국 산업혁명 시대와 달리 도시는 더 이상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해결책이 되고 있다(Goh 2009). 도시 시대는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정치적, 인구학적, 경제적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목격한다. 정치 제도 측면에서 보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민족국가’ 중심에서 ‘도시와 지역’ 중심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20세기와 21세기의 두 기간 동안 농촌/도시 인구 사이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비율은 20세기에는 40/60, 21세기에는 20/80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재의 세계 인구가 시골보다 도시에 더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와 함께 도시의 경제 기반도 산업 공정에서 문화, 창의성 및 기술을 활용하는 창의경제로 이동하고 있다(AuthenticityCity 2008). 이러한 변동은 도시 발달의 진행 방향이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도시의 구조적 기반이 본질적으로 탈산업화로 이동함으로써 산업도시의 역할에서 벗어나 창의도시의 출현을 주목하고 있다(Dongan and Lowe 2008).

## 2. 글로벌 창의도시 담론

프랑코 비안치니(Franco Bianchini)는 최근에 발표한 「창의도시 아이디어의 기원, 해석 및 발전에 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Origins, Interpretations and Development of the Creative City Idea)이라는 글에서 창의도시 개념의 기원, 변천, 비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연대별로 살펴보았다(Bianchini 2018). 이 개념은 1980년대 후반 호주에서 모든 시민, 특히 취약계층의 물질적 행복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 정책을 도시 계획에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념화되었다. 이후 이 개념은 영국, 독일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 발전하고 번성하였다. 영국과 유럽의 주요 이론가들로는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프랑코 비안치니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랜드리와 독립적인 연구 조직인 코메디아(Comedia)가 그가 주장하는 창의도시의 참신함을 옹호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도시 계획과 도시 문화 정책에서 고착화된 가정(假定)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옵션이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도시 정책 입안자들이 도시 문제에 직면할 때 다르게 생각하고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랜드리와 문화창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의도시 좋은 하드 인프라(건물, 도로 등)와 소프트 인프라(숙련된 인적 자본 등)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Landry 2008). 랜드리에 영향을 준 동시대의 인물로는 지역적 관점을 채택한 오케 안데르손(Åke Andersson)과 유명한 계획 학자인 피터 홀(Peter Hall)이 있다. 창의도시 개념은 페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 루이스 머퍼드(Lewis Mumford), 콜린 머서(Colin Mercer) 등과 같은 학자들의 저작에 의해 널리 알려지고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도시 재생에 문화 정책을 접목시키고 문화산업을 도시 환경의 새로운 경제력으로 인정했다(Bianchini 2018). 대체로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 계획에는 도시 문화 자본의 확인, 통합, 전략적 이용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1980년대에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와 같은 문화 주도형 도시 재생 이니셔티브가 등장했다(Landry 2008, 2017). 랜드리와 창의도시 이론을 통해 많은 서구 도시들은 탈산업화를 겪고 있으며 도심은 공동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Landry 2017).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버밍엄, 글래스고, 로테르담, 빌바오, 바르셀로나 등과 같은 도시들은 그들의 독특한 도시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유럽에서 문화 주도형 도시 재생 시대를 열었다.

물론 뉴어바니즘(new urbanism)으로서의 창의도시의 서로 상반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랜드리, 비안치니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가정에 도전하기 위해

도시 전체의 안녕을 위한 대안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제안하면서 도시의 창조 및 문화 자산과 인간의 독창성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플로리다와 같은 학자들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창의 전문가(또는 ‘창조계급’)를 유치할 ‘자석’이나 궁극적인 지역성으로서 도시 환경을 간주함으로써 창의도시를 보다 성장 지향적이고 엘리트주의적 개념으로 설명한다(Florida 2002). 이러한 상반된 관점이 현대 창의도시 논쟁의 요지를 구성하고 있다. 주요 기관과 학자들이 만들어낸 창의도시에 대한 수많은 정의를 해비타트(Habitat)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창의도시란 예를 들어 문화 및 창의 전문가에 대한 지원, 문화 인프라와 창의산업 및 새로운 ICT에 대한 투자 강화, 또는 도시 개발에 대한 상향식 접근방식 채택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이 도시의 경제적 및 사회적 기능의 필수 구성 요소인 도시 복합체로 정의된다(Habitat III 2015, 1).

또한, 문화창의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문화창의산업은 문화예술 콘텐츠가 있는 상품, 서비스, 활동의 창조, 생산, 유통, 소비를 주요 목표로 하는 활동 분야이다. 문화창의산업은 경제와 문화의 교차 지점에 있으며, 이 산업의 특징은 창의성과 예술 및/또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혁신과의 연결을 활동의 핵심에 두는 것이다(Habitat III 2015, 1).

랜드리와 비안치니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해비타트 III는 창의도시의 발전은 도시 문화 자산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University) (2001)에 따르면,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Habitat III 2015, 1). 다시 말해, 도시 문화는 도시 환경에서의 문화를 기능적 및 인류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으로 이해된다. 기본적으로 해비타트 III에 의한 이론적 설명은 도시의 문화창의산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창의산업은 창의성을 예술적 노력과 문화 콘텐츠의 중추적인 측면으로 하고 아울러 혁신과 연결하며, 경제와 문화가 교류하는 지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Habitat III 2015, 1).

창의도시 담론에서 일본 학자들은 세계화가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주요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실패한 일본의 작은 도시들을 재구조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Sasaki 2004). 이에 대응하여, 일본의 중소 도시들은 자신들의 구조적인 경제 기반을 재검토하고, 특히 탈산업 도시들을 위한 새로운 생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사카의 역사적인 도심인 센바(Kana 2012)와 가나자와(Kakiuchi 2015, 2016)의 사례에서처럼 일본 도시들은 문화예술이 도시 재생의 촉진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모방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일본에서 창의도시 개념은 일본의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2004, 2010, 2020)에 의해 널리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사회적 포용’의 측면을 강조하며 창의도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문화예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척하고 예술가, 창작자,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을 촉진하는 도시들은 다양한 ‘창조적 환경’과 ‘혁신적 환경’이 풍부하며, 노숙자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역적 풀뿌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Sasaki 2011, 34).

글로벌 도시 재구조화의 단점에 직면해 있는 일본 도시를 위한 해결책으로 사사키는 일본을 위한 변형된 버전의 창의도시 개념을 소개한다. 이 개념에서 그는 도시의

문화예술을 활용해 문화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문화창의산업/경제를 지속시키는 ‘문화적 생산양식’(cultural mode of production)을 권고하고 있다(Sasaki 2011). 또한 사사키 교수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변화와 도전 속에서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노숙자, 난민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창의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asaki 2011). 기본적으로 사사키 교수는 현대 창의도시 이론의 재개념화를 통해 이러한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다루면서, 이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Sasaki 2011). 일본의 대표적인 예로는 나고야, 요코하마, 가나자와 등이 있다. 창의도시의 기본틀을 개발하는 데 민간부문의 참여와 헌신을 조사한 바 있는 과거 일본 연구도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Konno and Itoh 2017).

위와 같은 배경에서 창의도시가 문화창의산업을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인 일본의 가나자와 시에서 전통 공예의 창조적 전승과 산업화를 위한 전략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 8월 현장 연구를 위해 말레이시아 연구원으로서 가나자와를 방문한 필자가 수행한 것으로, 질적인 연구 기법(인터뷰, 포커스 그룹, 현장 관찰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서술, 구성 및 권고사항은 현장 조사 방문과 가나자와에서 수집한 2차 자료(정부 보고서, 정책 보고서, 브로셔 등)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기반해 작성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도시의 문화 자산으로서 공예와 민속예술의 기반이 탄탄한 다른 창의도시를 위한 주요 참고 자료이자 권고안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창의도시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가나자와의 전략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가나자와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 3. 가나자와 시



그림 1. 가나자와 시, 이시카와 현, 일본  
출처: Kanazawa City (2018, 3).

가나자와 시(金沢市)는 일본 이시카와 현(石川県)의 중앙부에 위치한 호쿠리쿠(北陸)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다(그림 1). 도시의 총 면적은 468.64km<sup>2</sup>이다. 가나자와 시는 서쪽으로는 동해에서 동쪽으로는 도야마 현(富山県) 경계까지 23.3km이고, 시의 북쪽으로는 가호쿠(河北) 석호에서 남쪽으로는 하쿠산(白山) 기슭까지 37.3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시에는 데라마치(寺町) 대지, 고다쓰노(小立野) 대지, 우타쓰야마(卯辰山) 산이라는 3개의 구릉이 있다(Kanazawa City 2018, 3). 또한 가나자와에는 사이 강(犀川)과 아사노 강(淺野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요 강이 있어 시의 경계와 운하를 따라 굽이쳐 흘러 도시를 통과하며 물을 운반한다. 가나자와는 산, 바다, 깨끗한 물, 녹지로 이루어진 자연 환경의 축복을 받고 있다. 가나자와의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466,000명이며,<sup>1</sup> 하루에 교외 통근자로 50만 명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현재 가나자와의 주요 산업은 정보 기술, 기계, 섬유 및 도자기, 칠기, 금박 등의 전통 공예이다.

에도 시대(17-19세기 봉건 시대)에 가가(加賀)로 알려진 가나자와는 한때 부유하고 번창한 성읍이었다. 에도 시대에 속하는 뛰어난 문화와 풍부한 전통은 계속해서 번성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생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의 안내서에 잘 설명된 바와 같이, 가나자와는 과거의 전통 문화와 현재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2</sup>

#### 4. 문화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만든 문화예술

가나자와 시의 독특함은 도시의 역사와 찬란한 과거에 크게 기인한다. 산업화, 도시화, 근대화를 통해 발전된 근대 도시들과는 달리, 가나자와 시는 280년에 걸친 에도 시대에 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다르다.<sup>3</sup> 가나자와는 그 당시에 도쿄, 오사카, 교토에 이어 4번째로 큰 도시였다. 가나자와는 1546년 일향종(一向宗) 종파가 현재의 가나자와 성 자리에 오야마 고보(尾山御坊) 사찰을 건립하면서 불교의 중심지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37년 후에 일본의 3대 정복자 중 한 명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력한 장군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에게 영지를 주면서 마에다 가문이 탄생했고, 이 가문은 거의 300년 동안 9대에 걸쳐서 번성하였다(Scharf and Teploff-Mugii, n.d., 4).

1. Kanazawa, Japan Metro Area Population 1950-2020, macrotrends.

<https://www.macrotrends.net/cities/21627/kanazawa/population>.

2. 가나자와 시가 발행한 『가나자와』 라는 제목의 안내서에 언급되어 있다(1쪽).

3. 『가나자와』 안내서(5쪽).

다이묘(大名; 매년 1만 석 또는 150만 kg 이상의 쌀을 생산하는 지주에게 수여되는 칭호)가 된 마에다 가문은 에도(현재의 도쿄)에 사는 막부에게 곧 위협이 되었다. 언젠가는 마에다 가문이 가나자와에서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이었다. 마에다 가문이 100만 석을 생산하자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고, 에도에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마에다 다이묘는 이러한 상황을 달래기 위해 가나자와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예술과 문학 등의 문화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재산을 쏟아 붓는 매우 기민한 전략을 펼쳤다. 마에다 가문은 군사적인 야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 각지의 예술가와 장인들을 가나자와로 초청하여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마에다 다이묘의 전략은 효과가 있었고, 막부는 만족스러워하며 진정되었다. 가나자와는 점차 발전하여 이탈리아 피렌체와 견줄만한 유명한 예술 중심지가 되었다(Scharf and Teploff-Mugii, n.d., 5). 결국 가나자와는 일본에서 가장 포괄적인 문예를 갖춘 도시가 되었다.

문화예술은 전쟁으로부터 가나자와 시를 ‘구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를 보장했다. 이로 인해 마에다의 지도자들은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비단, 금속공예, 도자기, 노 가면, 칠기, 목공예 등의 독특하고 비길 데 없는 예술을 완성하는 데 전념해 온 예술 공방, 작업장, 길드가 가나자와에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동의 결실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과거의 전통적인 아우라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가나자와의 도시 경관, 역사 지구, 기념물에 스며들어 있다.

#### 5. 가나자와,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선정

가나자와 시는 2000년 무렵에 ‘창의도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된 동기는 세계화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독특한 특징을 지닌 21세기의 모범 도시가 되려는 열망 때문이었다. 이후, 2004년에 전 세계

**“Craftism” 헌장**

세계화 및 대량 생산의 영향으로 많은 도시들의 개성과 매력이 상실되어 가는 가운데 아래와 같이 가나자와의 “Craftism”을 명확히 하고 21세기에 지속가능한 창의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Craftism” 헌장을 제정한다.

# 문화와 산업을 연결하는 “Craftism”을 증진한다.  
 # 장인을 육성하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Craftism”을 다음 세대에 계승한다.  
 # 수작업의 도시 가나자와의 원천인 "Craftism" 정신을 일본 전역과 전 세계에 전파한다.

2009년 10월 16일  
 가나자와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그림 2. 가나자와의 “Craftism” 헌장

창의도시들이 상호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를 설립하자, 가나자와는 창의도시 등재 신청을 했다. 가나자와 시를 소개하는 글에서 창의도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창의도시란 시민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을 도모하는 독특한 문화를 지닌 도시이다. 다시 말해, 창의적인 문화와 혁신적인 산업이 연계되어 활기가 넘치는 도시이다(Kanazawa 2011).

그 후 2009년 6월 8일에 수작업의 도시인 가나자와는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영예로운 수상은 가나자와 시가 전통

**가나자와 창의도시 비전**

- 1. 문화와 비즈니스의 연결**  
 전통 공예와 기법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제조를 촉진하며,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많은 창의산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문화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문화예술과 관련된 차세대 제조업자와 젊은이들이 함께 하고, 경쟁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전통 공예와 공연예술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장인이나 예술가의 지원과 더불어 문화 행사의 참여를 통해 양질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국제적인 관심 유도**  
 국제 교류의 허브로서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장인, 예술가, 산업계 종사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증진하고, 21세기 도시와 지역사회의 비전, 글로벌 이슈, 세계 평화 등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일본과 외국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3. 가나자와 창의도시 비전  
출처: Kanazawa City (2016, 1).

공예와 예술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 온 모든 노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으로 여겨진다. 이 지정은 또한 해외 시장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기회이자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Kakiuchi 2015, 65). 가나자와 창의도시 추진위원회는 「Craftism 헌장」(Charter of “Craftism”)을 개발하였다(그림 2). 추진위원회는 산업 관계자, 공예 산업, 시민, 시 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가나자와 비전과 2014년까지 추진될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해 헌장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창의도시 운영 프로그램’(Creative City Steering Program)이 수립되었다.

전통 공예, 화과자, 가가 요리를 비롯한 가나자와의 수작업 전통은 장인의 예리한 감성과 독창성, 독특성, 질에 대한 고집을 토대로 하는 ‘장인 정신’(ものづくりの精神), 즉 Craftism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나자와의 Craftism 현장은 다음과 같이 그림 2에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가나자와 시는 전략 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진 창의도시에 대한 장려를 강조하고 있다(그림 3).

**6. 가나자와 문화창의산업의 창조적 전승과 산업화를 형성하는 기본 요인과 전략**

1차 및 2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고 삼각검증을 한 결과, 가나자와 시가 문화창의산업의 창조적 전승과 산업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창조적 전승과 산업화를 위한 기본 요인과 전략은 1) 토대, 2) 비전, 3) 인적 자본, 4) 계획 및 5)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5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토대**

*가. 역사적 유산*

2차 데이터 분석(가나자와 연례 보고서, 안내서, 브로슈어 등) 및 일본의 주요 정보 제공자들과의 인터뷰에 대한 삼각검증을 한 결과, 가나자와의 역사가 현대까지 도시의 문화창의산업의 전승, 발전 및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에도 시대에 파괴적인 전쟁으로부터 ‘도시를 구하는’ 데 문화를 기본으로 삼았던 역사적 유산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가나자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문화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가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감상하는 것이 도시 시민들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있다. 가나자와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보호하고 홍보하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토대는 가나자와의 문화 발전과 전승에 대한 전략을 형성했다.

**2) 비전**

*가. 현재 지도자가 이어가고 있는 과거 지도자의 비전*

성공적인 창의도시로서 가나자와의 현재 비전과 포부는 그들의 조상과 과거 지도자들이 남긴 유산과 통찰력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 가나자와 시의 현재 비전은 현대화 환경에 맞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로서의 가나자와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반영되어 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가나자와는 마에다 도시이에게 주도하고 전파한 강력한 문화적 및 창조적 요소들이 잘 나타나 있는 역사와 탄탄한 기반으로 인해 독특하다. 이를 인식하여 현 지도자들과 시민들은 가나자와의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유산을 계승하여 이 비전이 다음 세대에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조력자로서 문화를 육성하고 활용하려는 열망이 가나자와 개발 계획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가나자와 시청에는 가나자와 창의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가나자와 도시정책국 기획조정과’라는 부서도 있다.

*나. 산업화 전략: 지역, 국가, 국제에서 글로벌로*

가나자와 시는 문화창의산업의 산업화를 주도하기 위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가나자와 시의 비전은 문화창의산업이 일본 현지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및 세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는 원대한 비전이다. 예를

들어, 가나자와 안내서, 연례 보고서 및 창의도시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가나자와는 지역, 국가, 국제 및 글로벌 수준의 점진적인 시장 진출을 통해 창조적인 문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열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열망을 명시하고 있는 창의도시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가나자와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장인, 예술가,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지지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국제 교류 허브 및 국제 회의를 위한 목적지로서 역할을 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가나자와 문화예술창조 신전략 2020’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안된 실행 계획에는 “가나자와는 세계적인 규모의 문화 도시로서의 존재감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보다 야심차고 미래 지향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Kanazawa City 2016, 6). 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이 이니셔티브를 이끌어 나갈 명확한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는 이 새로운 전략의 네 번째 정책인 ‘글로벌 문화예술 진흥’이다. 이 정책에 따라 가나자와 시는 글로벌 문화 교류 허브를 염원하면서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and Exhibitions)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함으로써 가나자와의 문화와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의 청사진에 나오는 정책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나자와 시의 문화창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과 산업화 전략이 단순히 지역적 또는 국제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수준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개발을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및 유네스코 『2016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세계문화보고서』(UNESCO 2016)가 표방하는 문화 주도형 도시 재생이라는 주장과 병행하여 가나자와는 문화 요소를 위한 독특한 정책 공간을 갖춘 도시이다. 이것은 문화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방정식에 포함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도시 개발에 문화를 포함하는 것은 가나자와의 강력한 문화 정책, 창의도시 정책, 산업정책을 통해 입증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가나자와 시의 문화창의산업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촉진하고 발전시킨다. 가나자와는 오랜 전통과 새로운 혁신을 통합하는 계획과 제도적 틀 안에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이다. 각종 정책 문서를 검토해 보면, 도시의 발전과 진흥에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나자와 시는 옛 것과 새로운 것, 전통과 현대, 글로벌과 로컬이 혼합된 훌륭한 예이다. 이러한 것들은 ‘21세기 미술관’과 같은 현대적인 최첨단 박물관과 전통적인 박물관(이시카와 현립 미술관, 이시카와 현립 역사박물관 등)의 공생적인 공존을 통해 드러난다.

### 3) 인적 자본

#### 가. 장인과 그들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

노박물관장,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소장, 가나자와 시립 야쓰에 금박공예관장, 기모노와 도자기 제작 장인 등 주요 정보 제공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나자와의



그림 4. 기모노 예술가가 손으로 그린 디자인 © 수엣 령 쿠



그림 5. 기모노 예술가 작품 © 수엣 령 쿠



그림 6. 자신의 작품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기모노 예술가 © 수엣 령 쿠



그림 7. 기모노 예술가가 손으로 그린 작품 © 수엣 령 쿠



그림 8. 혁신의 한 형태로서 현대 제품에 손으로 그린 기모노 디자인 © 수엣 령 쿠



그림 9. 현대 제품에 기모노 디자인을 융합한 혁신적인 방식 © 수엣 령 쿠

일본 공예가와 장인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뷰에 응한 기모노 예술가는 손으로 그린 기모노 작품 하나하나가 걸작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가 기모노를 그리고, 디자인하고, 채색하는 동안 세세한 부분에 대한 그의 인내심과 집중력은 작품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의 증거이다. 이 기모노 예술가의 작품은 아래 그림 4-12에 나와 있다.



그림 10. 현대 여성 복장과 손으로 그린 기모노 디자인의 혁신적인 융합 © 수엣 령 쿠



그림 11. 현대 남성 복장과 손으로 그린 기모노 디자인의 혁신적인 융합 © 수엣 령 쿠



그림 12. 가가 유젠 기모노센터의 일반인을 위한 비디오 시청 구역. 비디오 영상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모노를 만드는 단계별 과정을 보여준다. © 수엣 령 쿠

금박 산업에서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묘사되었다. 금박공예관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아주 얇은 금박을 만드는 데 수반되는 세밀하고 공을 들이는 과정과 절차를 설명했으며, 오늘날에도 장인들은 여전히 이 과정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은 가나자와의 장인들이 자신들의 작품과 창작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내, 끈기 및 자부심을 보여준다. 그림 13(a-e)과 14는 이와 관련된 지루하고 힘겨운 단계를 보여준다.



그림 13(a-e). 금박을 제작하는 단계별 과정 © 수엣 령 쿠



그림 14. 일본 가정에서는 전통적으로 불교 제단에 금박을 사용한다. © 수엣 령 쿠

#### 나. 문화예술 전파에 대한 인식과 의지

도시의 문화를 전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은 예술과 문화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전파하려는 가나자와 사람들의 커다란 인식 덕분이다.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소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가나자와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위한 헌신은 자발적이고 우러나오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다르며, 이 점이 타 도시의 일본인들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월수입을 자기 자신에게만 쓰는 도쿄와 같은 대도시의 일본인들을 비교했다. 그리고 그는 가나자와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의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월수입의 일부를 기꺼이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랑스럽게 여겼다.

노박물관장은 인터뷰에서 교육 제도 역시 학교 아이들의 문화예술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학교 아이들이 노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의무적이며 학교 수업 계획의 일부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어린 나이에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열정과 감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가나자와 사람들의 높은 의식과 더불어, 교육 제도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 문화를 전수하려는 의식적이고 칭찬할 만한 노력이다.

#### 다. 모든 수준의 인적 자본 개발

가나자와 시의 연례 보고서 및 『가나자와 유네스코 크래프트 창조도시 2013~2016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가나자와 시의 문화창의산업에서 인적자본의 지속적인 육성이 우선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나자와 창의도시 비전’ 중 두 번째 비전은 문화 전달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나자와 문화예술창조 신전략 2020’에 요약된 실행 계획에도 예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가나자와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 몇 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실행했다. 문화 발전을 위한 인적 자본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나자와의 비전은 예술과 문화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과 제조업자들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함께 하고, 경쟁하며, 각자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나자와는 문화창의산업에서 인재 양성 및 기술과 지식 전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 가나자와 전통 산업 연수생 장학금

신진 및 젊은 전문가들은 우타쓰야마 공예 공방과 전통 제조 회사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받는다. 이를 통해 연수생들은 보다 정교한 공예 관련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과 해외 자매 미술대학들은 학생들과 교수진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예술가, 디자이너, 연구원을 양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국제 업무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 가나자와 어린이 공예 워크숍

미래의 장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가나자와 어린이 공예 워크숍이 디자인, 금속 세공, 염색, 도자기 분야에서 2년 동안 진행되었다.

- 가나자와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Network, ASPnet)는 어린이들의 국제 이해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후계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유네스코 ASPnet을 통해 가나자와의 전통 문화 및 지구 환경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유네스코학교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다.

위의 활동과는 별도로, 가나자와는 도시 간 협력을 통한 인적 자본 개발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젊은 장인들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Creative Waltz)을 통해 인적 자본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명의 젊은 장인들이 10곳의 창의도시로 파견되었다. 또한 젊은 예술가들이 훈련을 위해 다른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파견되기도 했다. 주요 목표는 그들이 다른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 영감을 받는 것이었다.

그 밖에, 2016년 도예가들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위해 경덕전(景德鎮; 징더전)으로 보내졌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학생, 가나자와 우타쓰야마 공예 공방 연수생, 가나자와 공예협회의 젊은 공예가 등이 참여했다. 협력 도시 및 연도는 다음과 같다

- 2013년: 볼로냐, 산타페, 브레드퍼드, 헨트, 서울, 생테티엔
- 2014년: 전주, 서울, 산타페, 볼로냐, 헨트, 생테티엔
- 2016년: 경덕진(징더전)

4) 계획(물리적 및 비물리적)

가. 물리적 계획과 좋은 도시 설계의 통합

가나자와 시는 아래 그림 15-20에서 볼 수 있듯이 정원(겐로쿠엔 정원, 가나자와 성 공원 등), 찻집(니시 차야 지구), 사찰 등과 같은 특정 테마로 특색 있는 구역이 있는 물리적으로 잘 계획된 도시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외에, 가나자와 시는 뛰어난 문화 활동, 건축 유산과 역사적인 도시 경관으로 인해 2009년 1월에 역사 도시의 영예를 차지했다(Kanazawa City 2018, 11). 관광객과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 간판, 브로셔 및 관광 창구/키오스크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가나자와에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 연구원인 필자에게 시내를 탐색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필자는 일본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간판과 게시판이 일본어와 영어 등 2개 언어로 되어 있어서 가나자와 주변을 이동하는 일이 비교적 수월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겐로쿠엔 주변 문화의 숲’(兼六園周辺文化の森)이다. 그림 2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물관, 갤러리 등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문화시설들의 접근성, 가용성 및 근접성이 용이하며, 각 문화시설은 반경 1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배치도와 간판을 보면 이시카와 현립 역사박물관, 이시카와 현립 미술관, 이시카와 현립 노박물관, 이시카와 현립 노극장, 이시카와 현립 전통산업공예관 등 문화시설이 모두 서로 인접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문화시설군(群)은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하나의 박물관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박물관 클러스터 전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문화 감상이 높은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방문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무료이거나 아주 낮은 입장료를 부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매력 포인트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시설들의 폭넓은 이용가능성, 용이한 접근성, 무료 또는 최소 가격의 입장료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유네스코의 도시 포용 원칙과도 일치한다.



그림 15. 사찰 지구, 찻집 거리, 정원을 통해 나타나는 가나자와 시의 역사 및 문화 자산. 출처: Kanazawa City (2018, 11).



그림 16. 니시 차야 지구 © 수엣 령 쿠



그림 17. 니시 차야 지구의 서양식 선술집 © 수엣 령 쿠



그림 18(a-d). 겐로쿠엔 정원 © 수엣 령 쿠



그림 19(a-b), 가나자와 성 공원 © 수엣 령 쿠



그림 20(a-b). 나가마치 지구의 무사 저택 © 수엣 령 쿠

가나자와가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 공공공간의 질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도시로서 주요 본보기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나자와 시의 방식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그들의 자연적인 도시 환경과 연결되는 시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 이것은 양질의 도시 환경이 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향상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사사키 교수(2020)가 가나자와 시를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로 묘사한 것과



그림 21. '겐로쿠엔 주변 문화의 숲' 근방에 있는 박물관들의 근접성 © 수엣 령 쿠



그림 22. '겐로쿠엔 주변 문화의 숲'에 있는 자연유산(예: 정원)과 문화유산(예: 박물관) © 수엣 령 쿠



그림 23. 박물관과 극장 등 문화시설들이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해 있다. 일본어와 영어로 된 간판의 예를 보여준다. © 수엣 령 쿠

일치한다. 특히 가나자와 시는 문화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유산, 예술, 문화 및 창의 이니셔티브를 시의 물리적 계획과 도시 디자인에 접목하였고,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도시의 문화를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포용성을 증진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후손을 위해 문화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나. 질적·양적 측면에서 수준 높은 박물관 및 갤러리**

가나자와는 인구 50만 명에 불과한 도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20개 이상의 공립 및 사립 박물관이 있는 ‘박물관 클러스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Kakiuchi 2016, 106). 따라서 필자는 가나자와에 있는 수많은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었다. 2018년 8월 가나자와 현장 조사 기간 동안 총 9개의 박물관을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가나자와와 같은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에 있는 박물관들의 내부 배치와 디자인 및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방문한 박물관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이시카와 현립 미술관
- 이시카와 현립 역사박물관(발굴 유적 전시회)
- 가가혼다 박물관
- 이시카와 현립 전통산업공예관
- 이시카와 제4고교 기념문화교류관
- 가나자와 시립 야쓰에 금박공예관/공장
- 무사 저택/박물관
- 가나자와 시니세 기념관(옛 약재상 건물)
- 마에다 도사노카미케 자료관



그림 24 (a-d). 전통산업공예관에 세련되게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과 공예품. 전시회 설명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일본어와 영어 등 2개 언어로 되어 있다. © 수엣 랭 쿠



그림 25 (a-b). 전통산업공예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통 공예가의 작업 과정에 대한 꼼꼼한 기록  
© 수엣 랭 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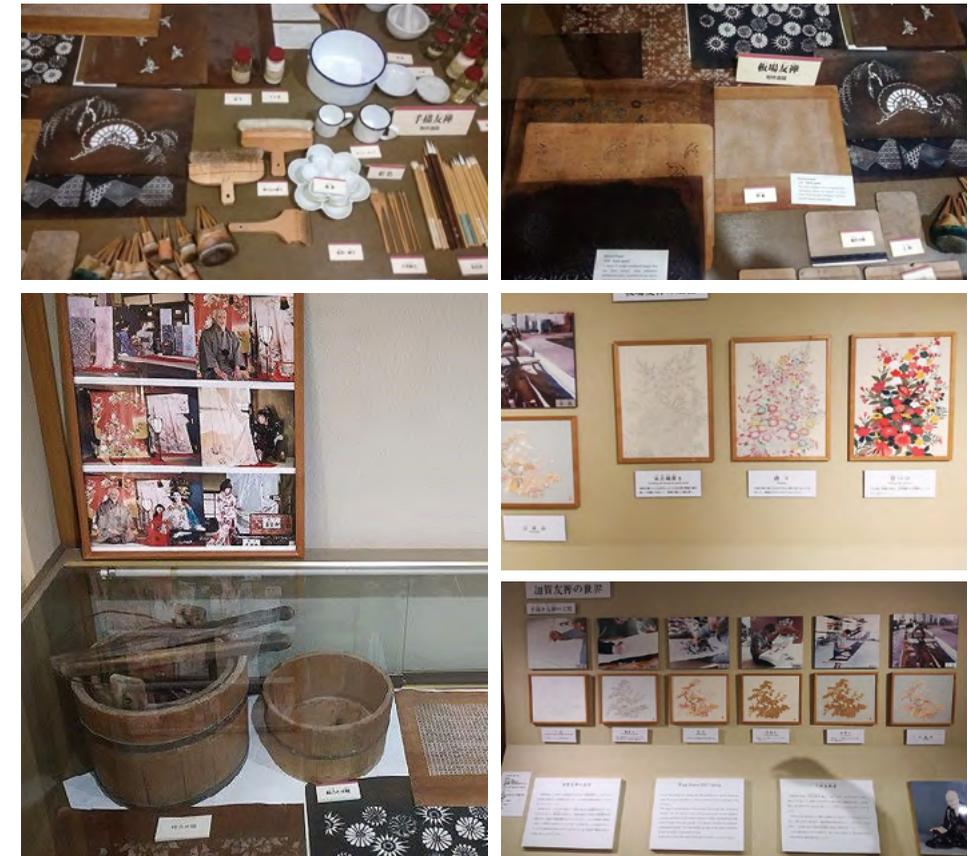


그림 26(a-e). 가가 유젠 기모노센터는 수제 기모노 제작 방식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이러한 지역 지식은 견습생에게 전승된다. © 수엣 랭 쿠

그림 24-25를 보면, 가나자와에는 많은 박물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나자와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틀림없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이다. 필자는 위의 9개 박물관을 방문한 결과, 박물관들이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각 개별 박물관의 중요한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유물들을 기획하고 전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외국인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해 각 유물을 설명하는 영어 텍스트의

제공은 박물관 당국의 칭찬할만한 노력이었다. 가나자와의 많은 박물관이나 갤러리들은 전시된 각 귀중한 유물의 과거 역사, 이야기, 그리고 역할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전통산업공예관에서는 전통 공예가들의 작품을 문서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은 문화적 기술을 창조적으로 전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 장인과 공예가의 기술과 지역 지식은 가나자와에서만 볼 수 있고 독특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이자 지역 고유의 것이다. 이러한 전통 장인과 공예가들은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인 가나자와의 핵심 요소이다. 이 박물관은 각 장인과 공예가의 단계별 작업을 꼼꼼히 기록되고 문서화하여 전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 장인과 공예가들의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의 기술과 지역 지식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심지어 가가 유젠 기모노센터에는 그림 26(a-e)과 같이 손으로 그린 기모노의 제작 과정을 기록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작은 갤러리가 있다.

**다.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

랜드리(200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창의도시는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 모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가나자와 시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 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우수한 인프라와 편의시설, 헌신적인 지역사회가 잘 갖춰져 있는 좋은 사례이다. 중요한 건물 겸 문화 공간으로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이 있다. 이 곳은 예술, 유산,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창조적 허브다. 이 공간은 일반 대중에게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조직하거나 음악가들이 단순히 악기(피아노, 일렉트릭 기타, 타이코 드럼 등)를 연습할 수 있도록 최소 요금으로 임대된다. 시민예술촌의 슬로건은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게 의한”으로, 문화예술의 발전과 감상을 위한 가나자와 지역사회의 강한 참여와 관여를 나타낸다. 이 공간의

접근방식은 시민 스스로에 의해 그리고 다른 시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상향식 또는 풀뿌리식 시민 참여가 분명하다. 글상자 1과 그림 27(a-d)은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을 좀 더 자세히 보여준다.

**글상자 1.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역사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옛 창고이자 공장이었다.</li> <li>드라마 공방, 음악 공방, 미술 공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복원되어 적응적 재사용(adaptive reuse)을 하고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중무휴 24시간 개방</li> <li>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장소</li> <li>시설물은 누구나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저렴한 요금이 부과된다.</li> <li>모든 공방(드라마 공방, 음악 공방, 미술 공방 등)은 음악, 연극, 미술 및 기타 예술 활동을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li> </ul>
<p>출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홈페이지, <a href="http://www.artvillage.gr.jp/">http://www.artvillage.gr.jp/</a> (2018년 8월 7일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소장 인터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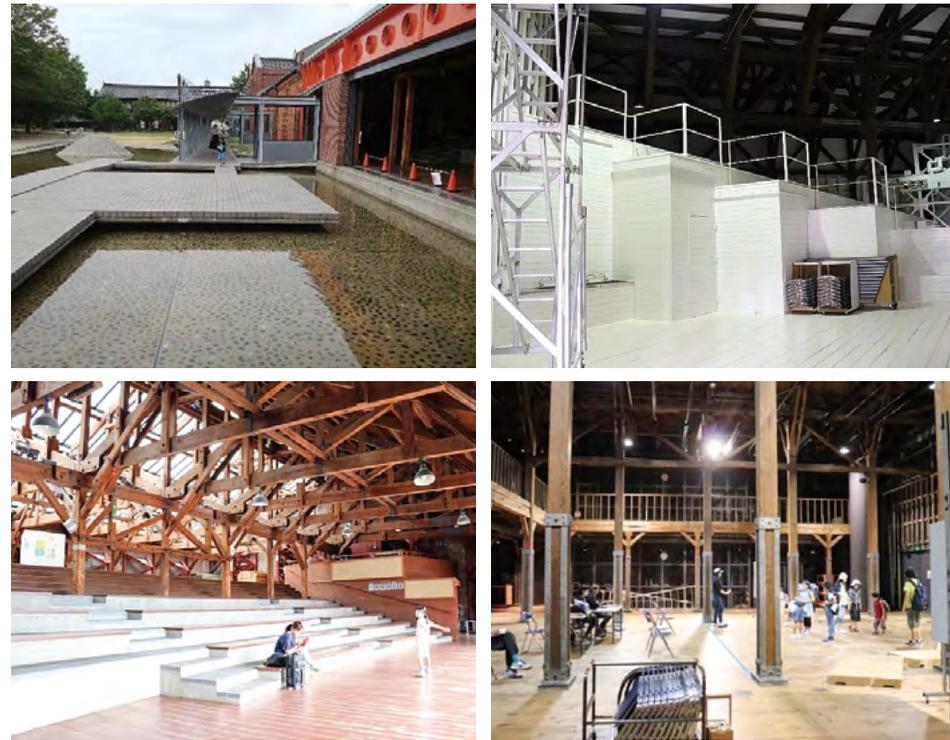


그림 27(a-d).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의 창조적 전승과 창의성이 일어난다. © 수엣 령 쿠

## 5) 비즈니스 모델

### 가. 문화를 비즈니스에 접목

가나자와가 문화 발전에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시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비즈니스 세계에 문화를 포함시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가나자와의 장인과 공예가의 생계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창의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나자와는 전통 공예와 공예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지역 장인들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작품 창작을 표방하고 있다. 이어서 가나자와는 창의산업을 발전시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지금까지 가나자와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 수준에서 몇 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시행했다.

#### • 가나자와 크래프트 비즈니스 창조기구

2011년 4월에 설립된 가나자와 크래프트 비즈니스 창조기구는 공예품 판매 채널 확대 및 공예 정보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공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공예-가나자와’의 브랜딩, 판매 채널 개발 세미나, 공예 정보 보급, 새로운 공예 사업 촉진 등이 포함된다.

#### • 다이닝 갤러리 긴자노 가나자와

가나자와 시는 지역 공예품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쿄에 ‘다이닝 갤러리 긴자노 가나자와’를 설립했다. 이 갤러리는 홍보 허브의 역할을 한다. 2014년 9월부터 정보 및 유통 센터 역할도 하고 있다.

#### • 오샤레 메세

오샤레 메세(가나자와 패션산업 박람회)는 2006년부터 매년 가을 전통 공예품 및 섬유 제품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에는 공예 시장과 전통 공예 모티브를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이 포함된다.

#### • 가가 유젠 옷감 염색 및 가나자와 금박 기술 증진

전통 공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 생활양식에 맞게 채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나자와에는 두 개의 기관이 설립되었는데,

2009년 7월에 설립된 가나유젠 기술진흥연구소 그리고 이어서 2010년 7월에 설립된 가나자와 금박 기술진흥연구소가 있다. 이들 기관은 산업 기술과 기능 유지, 신제품 개발 및 시장 확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Kanazawa City 2016, 4).

**나.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존중과 선호**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문화시설(즉, 박물관)과 겐로쿠엔 정원, 가나자와 성 공원, 오미초 시장 등 공공 장소에 대한 견학을 포함했다. 가나자와에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기념품 가게들이 있었지만, 흥미롭게도 이들 관광지에서는 문화 및 창의 모조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것은 기념품 판매상들이 가나자와의 공예 정신을 잘 따르고 준수하고 있으며, 모조품 대신 오리지널 상품을 판매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관행은 구매자들이 가나자와의 독창적인 문화 및 창의 상품을 구매하고 존중하며 감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인과 공예가의 지속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 상품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양식은 가나자와 창의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한다.



그림 28. 일본 양초의 우수한 포장과 마케팅  
© 수엣 령 쿠



그림 29. 일본 보석의 완벽한 포장과 브랜딩  
© 수엣 령 쿠

**다. 마케팅, 포장 및 브랜딩**

가나자와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동안, 필자는 이 도시의 역사 지구, 정원, 박물관에 위치한 상점들이 문화 및 창의 상품에 대한 포장, 브랜딩, 마케팅을 중요시하고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발견했다(그림 28과 29 참조). 가나자와의 문화 및 창의 상품을 디자인, 장식, 포장, 브랜딩 및 마케팅하기 위해 세부 사항에 기울이는 관심과 주의를 칭찬받을 만하며 산업화 전략의 일부로 다른 도시에서도 본받아야 한다.

**7. 결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구의 탈산업화된 도시들은 도시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 주도형 도시 재생 전략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나 오사카 등과 같은 대도시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 대부분의 중급 도시들이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학자들(사사키, 가키우치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많은 일본 도시들은 도시 개발에 문화와 창의성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를 위한 문화적 생산과 소비 양식의 길을 따라갔다.

본 연구는 가나자와 창의도시의 문화적 생산양식을 파악하고, 가나자와가 문화창의산업을 전승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기본 요인과 전략을 규명하였다. 도시의 문화창의산업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성공을 한 가나자와가 강조하는 5가지 주제, 즉 1) 토대, 2) 비전, 3) 인적 자본, 4) 계획, 5) 비즈니스 모델은 공예와 민속예술의 구조적 기반을 갖춘 다른 창의도시들에게 전략적인 권고가 될 수 있다.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이 종종 위협을 받는 세계화 속에서 가나자와가 수행하는 창조적 전승과 산업화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문화(공예 등)의 경제적 가치 및 국제 플랫폼에서 도시 창의산업의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외에도, 모든 수준의 인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은 장인과 공예가의 새로운 핵심 그룹의 탄생과 더불어 기술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지식의 전승을 보장할 것이다. 마에다 선조들이 열망하던 비전과 유산이 많은 세대에 걸쳐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가나자와 시의 전략은 지속적인 문화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AuthentiCity. 2008. *Creative City Planning Framework—A Supporting Document to the Agenda for Prosperity: Prospectus for a Great City*. Toronto: AuthentiCity.
- Bianchini, Franco. 2018. “Reflections on the Origins, Interpretations and Development of the Creative City Idea.” In *Cities and Creativity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edited by Ilja Van Damme, Bert De Munck, and Andrew Miles. London: Routledge.
- Donegan, Mary, and Nichola Lowe. 2008. “Inequality in the Creative City: Is There Still a Place for ‘Old-Fashioned’ Institution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2.1: 46–62.
- Florida, Richard.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 Goh, Ban Lee. 2009. “George Town As an Engine of Growth.” *Penang Economic Monthly*, 36–38.
- Habitat III. 2015. *Habitat III Issue Papers, 4—Urban Culture and Heritage*. New York.
- Kakiuchi, Emiko. 2015. “Creative Craft City Kanazawa.” In *Culture, Creativity and Cities*, edited by Emiko Kakiuchi and Xavier Greffe, 49–78. Japan: Suiyo-sha.
- \_\_\_\_\_. 2016. “Cultural creative cities in Japan: Reality and prospects.” *City, Culture and Society* 7.2: 101–108.
- Kana, Koichi. 2012. “An experiment in urban regeneration using culture

- and art in Senba, Osaka's historic urban center, with a focus on the regeneration of urban space." *City, Culture and Society* 3.2: 151-163.
- Kanazawa City. 2011. *Kanazawa Creative City Steering Program*. Kanazawa "Craftism" for the World 2011.3 Edition.
- \_\_\_\_\_. 2016. *Kanazawa UNESCO Creative City of Crafts 2013-2016 Monitoring Report*.
- \_\_\_\_\_. 2018. *City of Kanazawa Annual Report 2018*.
- Konno, Yukiko, and Itoh Yuki. 2017. "A creative city planning framework by a private company: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Futako-Tamagawa by Tokyu." *Cogent Business & Management* 4: 1-13.
- Landry, Charles. 2008.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2nd ed. London: Comedia Earthscan.
- \_\_\_\_\_. 2017. *The Origins & Future of the Creative City*. Bournes Green Nr. Stround: Comedia.
- Sasaki, Masayuki. 2004. "The Role of Culture in Urban Regene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Forum Barcelona 2004.
- \_\_\_\_\_. 2010.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al creativity and social inclusion: Rethinking creative city theory through a Japanese case study." *Cities* 27: 53-59.
- \_\_\_\_\_. 2011. "Urban Regeneration through Cultural Diversity and Social Inclusion." *Journal of Urban Cultural Research* 2: 30-49.
- \_\_\_\_\_. 2020. "The Creative Cities of 21st Century: From Japanese Case."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1: 13-23.
- Scharf, Lauren, and Evelyn Teploff-Mugii. n.d. *Strength & Beauty. Kanazawa: City of Artisans*. Kanazawa: Kanazawa City Hall & Kanazawa City Tourism

- Association.
- UNESCO. 2016. *Culture: Urban Future. Global Report on Culture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Paris: UNESCO.